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카자흐스탄(Republic of Kazakhstan)

I. 일반개황

면적	2717천 km ²	G D P	1,301억 달러(2008)
인구	15.52백만 명(2008)	1 인 당 GDP	8,382 달러(2008)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Tenge(KM)
대외정책	친러시아, 대 서방 우호관계	환율(달러당)	120.3(2008년 연평균)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9위의 영토대국으로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주요 곡물 및 광물 생산기지였던 동국은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외 개방 개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 및 서방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9.7	10.6	8.9	3.2	-2.0
재정수지 / GDP	0.6	0.8	-1.7	-2.1	-3.5
소비자물가상승률	7.6	8.4	18.8	9.5	7.5

자료: IMF, EIU

□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 유가상승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제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동년 중 3.2%의 성장에 그쳤음.
- 2009년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실질 GDP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전망으로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세

- 2008년 소비자물가는 2007년말부터 지속된 국제식료품 가격의 상승, 재정지출 확대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9.5% 상승하였음.
- 한편, 2008년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 수요 감소와 국제상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년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2008년 재정수지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2.1% 수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로 인한 석유 수출 관련 재정수입 감소,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법인세 인하조치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5% 수준으로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법인세율은 2009년 1월부터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되었음.

- 2009년 8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0년부터 정부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국제유가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2010년 재정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정책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FDI, 정부 세입 등 경제전반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2009년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산업다각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석유, 가스 부문 비중: GDP의 30%, 총수출의 59%, 정부 세입의 30%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자본재,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

-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

- 카자흐스탄은 국내 자본축적 부족으로 투자자금을 주로 해외차입과 FDI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잠재력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동국은 석유, 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철,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외국인투자자금이 대규모 유입되어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 석유: 매장량(398억 배럴) 세계 9위, 생산량(149만 b/d, '07) 세계 18위
- * 천연가스: 매장량(3조 m³) 세계 11위, 생산량(273억 m³) 세계 28위
- * 석탄: 매장량(345억 톤) 세계 8위
- *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 * 크롬: 구소련 지역 매장량의 90% 보유
- * 납, 텅스텐, 구리, 아연: 구소련 지역 매장량의 50% 보유

- Tengiz 유전(미국 Chevron 주도),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하여 아직 생산이 개시되지 못한 동국 최대의 Kashagan 유전(이탈리아 ENI 주도)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 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음.

□ 경제위기 대응프로그램 시행 중이나 효과는 미지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10 Action Plan을 수립,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약 40%인 80억 달러는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에서 조달할 예정임. 2010년부터는 산업 발전 및 다각화 5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 국부기금 현황: 2008년 12월 275억 달러 -> 2009년 4월말 225억 달러(50억 달러 감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환보유액 감소가 우려되고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2009년 2월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며 탱게화가 달러화 대비 약 19% 평가절하됨. 그러나, 동 조치로 은행들의 대외채무 상환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옴.
-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국내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09년 9월 재할인율(refinancing rate)을 50bp 인하하며 7%로 낮추었으며, 이는 동년 들어 7번째 인하임. 또한 유동성 공급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도 인하하였음.
- 정부의 이러한 경제위기 대응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국제유가가 2009년 2/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2010년에는 정부의 부양정책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은행 국유화 조치 단행

- 2008년 11월, 4대 상업은행(BTA Bank, Alliance Bank, Kazkommertsbank, Halyk Bank)과의 자본금 증액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 2월 정부는 최대 민간은행 BTA Bank(정부지분 78.14%)와 4위 은행 Alliance Bank(정부지분 76%)를 국유화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1,056	-1,999	-8,226	6,978	-3,026
경 상 수 지 / G D P	-1.8	-2.5	-8.0	5.4	-2.8
상 품 수 지	10,322	14,642	15,091	33,519	16,725
수 출	28,301	38,762	48,351	71,971	41,913
수 입	17,979	24,120	33,260	38,452	25,188
외 환 보 유 액	6,083	17,750	15,775	17,870	18,296
총 외 채 잔 액	43,378	74,148	96,927	107,856	106,021
총 외 채 잔 액 / G D P	75.3	91.1	93.7	82.9	98.9
D . S . R .	18.4	25.1	32.5	25.8	45.9

자료: IMF, GDF, EIU.

□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추정

- 외국인투자자 및 해외차입금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지출이 많은 관계로 카자흐스탄은 만성적인 소득수지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며 2007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여왔음.
- 그러나, 2008년도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의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전년 대비 약 120% 증가한 335억 달러를 시현하며 70억 달러(GDP의 5.4%)의 흑자로 반전하였음.
- 2009년에는 2사분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 하락 및 수출수요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며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GDP 대비 2.8%)로 반전될 것으로 추정됨. 수입 역시 자국통화 절하 및 국내 수요 위축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9년 2월초,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자국통화를 2008년 대비 19% 평가절하하였음.

□ 대외여건 악화로 총수출 감소 추정

- 2008년까지는 연평균 40%의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상품가격 하락과 석유, 가스 이외의 수출 수요 감소로 2009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42% 감소한 41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국제유가 상승 반전으로 외환보유액은 수입의 4개월분 수준으로 회복

-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석유수출 관련 재정수입 증대, 에너지 개발 관련 FDI 유입 지속 증가 등에 힘입어 2005년말 61억 달러에서 2008년말 17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09년 2사분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반전함에 따라 1사분기중 감소추세였던 외환보유액이 증대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83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4개월분으로 개선됨.

□ 은행차입 난항으로 총외채 감소 추정

- 카자흐스탄의 외채 규모는 은행 등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급등으로 인하여 2005년 434억 달러에서 2008년 1,079억 달러로 3년간 약 150% 증가하였음.
- 한편, 세계 금융위기 발생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은행이 부실화됨에 따라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되어 2009년중 총 외채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높은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지속될 전망

- 2008년까지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지사간 대여금 및 은행의 해외차입금 상환부담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매년 30~4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중 수출의 급감으로 총외채잔액/총수출이 2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 중심의 독재체제 지속

-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지난 17년간 장기 집권해 온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은 2차례 개헌을 통해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2005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였음. 또한 2007년 8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여당(Nur Otan당)이 88.1%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모든 의석을 독점하였음.

□ 최근의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 지속 예상

-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일부 반대파 정당들이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항할 정도의 세력은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집권세력내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개각을 실시하고 언론도 적절히 통제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2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2009년 10월 2대 야당인 Azat와 국가사회민주당(OSDP)이 통합하였음.

□ 러시아,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관계 강화하는 전방위외교 기조 유지

- 최대 교역국(2007년 기준 총수출의 9.8%, 총수입의 35.5%)이자, 원유 주요 수출루트인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 최근 원유 수출루트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추세
- * 2006년 카자흐스탄과 중국을 잇는 Atasu-Alashankou 송유관(총 길이 960km) 건설이 완공된 이후 동 송유관을 통해 연간 약 4백만톤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

-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화물의 자국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등 에너지 부문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미국도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노력 및 세계경제 편입 지속 추진

-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구소련 국가중 최초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2010년 의장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CIS,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등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을 체결, 동 조약은 2010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임. 한편, 관세동맹 가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WTO정식 가입 추진도 재개하였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경제성장 지속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회불안요인은 크지 않은 편

- 오랜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임.
-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공공부문에 대한 대량 해고 및 신규 채용 중단으로 실업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불안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민족(카자흐계, 러시아계 등), 다종교(이슬람 수니파, 러시아 정교 등) 사회지만, 민족간 갈등 및 종교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는 다수의 러시아계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수도를 남부의 알마티에서 러시아에 인접한 북부지역의 아스타나로 이전한 것도 러시아계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한국수출입은행	C2(2009.12)	C2(2009.5)
OECD	5등급(2009.10)	4등급(2009.1)
S&P	BBB-(Stable)(2009.5)	BBB-(Negative)(2008.4)
Moody's	BBB-(Stable)(2009.5)	BBB-(Negative)(2008.4)
Fitch	BBB-(Stable)(2009.12)	BBB-(Negative)(2008.11)
I.C.R.G.	92/140(2009.11)	56/140(2008.11)
Euromoney	74/186(2009.9)	66/186(2009.3)
I.I	74/178(2009.9)	68/177(2009.3)

□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격등급 유지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Fitch사는 동국의 장기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단계 하향조정하였으나, Moody's 및 S&P는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2009년 10월 OECD는 동국의 등급을 종전 대비 한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조정하였음.
- * 조정사유: 은행부문내 높은 NPL 비중(2009년 10월 현재 19.7%), 석유산업 의존 구조, 과중한 외채부담 등

□ 최근의 동국 국영상업은행 채무재조정과 관련, 신용평가기관간 동국 등급에 대한 상반된 입장 견지

- Moody's는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불안정 지속 및 유가 약세를 이유로

등급전망을 종전 Stable에서 Negative로 변경하였으나, S&P는 정부가 동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정부의 잠재적 채무가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등급전망을 종전 Negative에서 Stable로 변경

□ 주요 ECA의 인수태도(2009.9월 현재)

- US Exim: 중단기 조건부 인수가능
-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은 2010년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 최대 상업은행인 BTA Bank와 4위 은행인 Alliance Bank는 금년 2월 정부가 지분 70% 이상을 매입함으로써 국유화되었으나, 2009년 3월 이후 BTA Bank와 Alliance Bank가 일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어 현재 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중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은행들에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채무재조정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2010년 3월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BTA Bank의 채권단은 최종 채무재조정 금액을 116억 달러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짐.

* BTA Bank는 건설, 주택분야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카자흐스탄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카자흐스탄 주택가격이 2007년 하반기 이후 2008년 7월까지 1년만에 약 60% 급락함에 따라 큰 어려움에 직면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2008년): 7억 달러(수출 3.5억 달러, 수입 3.5억 달러)**

- 2008년중 자동차 수출의 부진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36.3% 감소함에 따라 교역량이 전년 대비 13.1% 감소하였으며, 2009년 1~11월중 교역규모는 4.3억 달러(수출 2.8억 달러, 수입 1.5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양국의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

- * 주요 수출품: 합성수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
- * 주요 수입품: 합금철, 고철, 철강판 등

□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현황**

- 200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총 408건, 10.2억 달러 규모이며, 건설업 및 광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 2009년 5월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향후 에너지 부문 등 경제 전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표 4>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1~11월	주요품목
수출	5.5	3.5	2.8	합성수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입	2.6	3.5	1.5	합금철, 고철, 철강판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정치적으로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하에서 정치적 안정이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한 공공부문 대량 해고 및 신규채용 중단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나 사회불안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관세동맹 체결 등으로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에너지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부문 의존도가 높아 2008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 강세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세계 금융위기 발생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9년 2월 주요 은행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동은행들은 현재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을 협의중임.

조사역 반형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